

카니발 페다고지(Carnival Pedagogy)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음악 교수·학습 방안 연구

이 경 민* · 손 민 정**

세계시민교육이 교육 분야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예술교육이 창의·감성적 측면을 넘어 시민성 함양의 대안적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음악 교수·학습 지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억압, 갈등, 비판적 의식, 해소, 변화, 실천 등의 논의를 다루고 있는 ‘카니발 페다고지’(Carnival Pedagogy) 교수·학습이론을 도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카니발 페다고지의 주된 특징을 비교하여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들을 3단계로 구분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실제 음악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 단계, 교수·학습 설계 절차,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 주제어: 세계시민교육, 카니발 페다고지, 음악교육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세계시민교육
2. 카니발 페다고지를 적용한 세계시민교육
3. 음악교과에 적용한 카니발 페다고지 기반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단계

III. 음악 교수·학습 방안

1. 음악 교수·학습 설계
2. 음악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IV. 결론

* 대전 도안고등학교 교사 (kmin116@gmail.com)

**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부교수 / 교신저자 (mjson@knue.ac.kr)

I. 서론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의에 따르면, 세계시민교육이란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유네스코, 2015). 즉, 세계시민교육은 평화, 환경, 인권, 다양성, 지속가능발전 등 인류 보편적 가치와 관련한 이슈들을 세계 공동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참여를 촉구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적 협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제 세계 공동체의 평화와 협력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시민교육을 미래 교육의 중요한 지향점으로 선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교육의 공적 사명이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 범교과목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새롭게 추가하고, 세계시민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교사를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들을 제공해 오고 있다(교육부, 2015). 또한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분석과 현장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사회과의 교육 목적이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 육성’으로 세계시민교육의 교육적 목적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김선정 외, 2017).

한편 세계시민교육을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는 연구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정서적 기능을 강조해 시민성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권희연, 2016; 이세영, 2016; 정연희, 2010). 즉, 예술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습자 중심의 소통능력과 공감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교육이 창의·감성 측면을 넘어 시민성 함양의 대안적 방법으로 ‘카니발 페다고지’(Carnival Pedagogy)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강인애 외, 2016).

본 고에서는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카니발 페다고지를 적용하고자 한다. 카니발 페다고지는 바흐틴(M. Bakhtin, 1895-1975)의 ‘카니발’(Carnival)이론과 프레이리(P. Freire, 1921-1997)의 ‘비판적 페다고지’(Critical Pedagogy)를 결합한 교수·학습 이론이다. 카니발 페다고지는 개인, 사회, 국가, 세계 속의 다양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양한 문제와 모순들은 모두가 평등한 공간인 ‘카니발’에서 해학과 풍자가 깃든 놀이를 통해 해소되는데(Bakhtin, 2001) 해방을 통한 변화는 곧 사회

적 실천(Praxis)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Freire, 2002) 카니발 페다고지는 변혁적 교육(Transformative Pedagogy)¹⁾이다. 또한 카니발 페다고지는 ‘문화예술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억압, 갈등, 비판적 의식, 해소, 변화, 실천 등의 논의를 다룬다. 따라서 예술교과인 음악교과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다룰 때 카니발 페다고지의 이론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 음악교육은 음악의 심미성과 내적 가치를 강조하는 ‘음악을 위한 교육’을 강조해왔다(리머, 1989; 랭거, 1993). 이제는 더 나아가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참모습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음악교육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의 특징과 가치들을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은 사회 안에서 존재하며 음악 또한 그 사회를 반영한다. 이제는 학습의 주체자로서 ‘나’를 발견하고,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통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더 나은 세상으로의 변화를 위해 실천(Praxis)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음악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음악교육에 대한 연구는 타교과에 비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 음악교육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등의 연구 또한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카니발 페다고지에 기반하여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음악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세계시민교육과 카니발 페다고지의 공통적 특징을 바탕으로 학습 단계를 도출해내고, 이를 2015 음악과 개정 교육과정과 연관 지어 음악 교과에 적합한 학습 단계를 추출해 볼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세계시민교육 관련 음악 수업 설계 시 활용 가능한 절차와 이를 구체화한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를 제안하며 마무리 할 것이다.

1) 유네스코 아태교육원(2014)은 변화를 추구하는 변혁적인 교육방법(transformative pedagogy)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 자체를 transformative pedagogy로 인식해도 무방할 것이다.

- ① 학습자가 실생활 속의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한다.
- ② 학습자가 주류 담론의 가설과 세계관,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체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집단을 고려하도록 돕는다.
- ③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 ④ 희망하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행동에 참여할 것을 강조한다.
- ⑤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외부에 있거나 좀 더 넓은 사회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다.

Ⅱ. 이론적 배경

1.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이 새로운 글로벌 이슈로 등장하기까지는 여러 맥락적 흐름들이 있었다. 그간 유네스코에서는 평화교육,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이름으로 세계시민교육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정우탁, 2015). 이러한 교육이 세계시민교육으로 명명되어진 것은 2012년 유엔사무총장이 제시한 ‘세계교육 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에 의해서이다. 지구상의 모든 어린이는 학교를 다녀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며,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언급이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가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이어서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서 전 세계 교육 관련 담당자와 연구자들은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글로벌 의제가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과 ‘양질의 교육 보장’이었다면 이제는 ‘세계시민성 함양’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21세기에 직면한 경제, 정치, 문화, 환경을 아우르는 범지구적 문제에 대안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세계시민교육은 평화, 빈곤, 환경, 인권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세계 공동체적 인식과 참여를 촉구한다. 그러나 다양한 학자들은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적 다층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세계시민교육이 전개되는 실제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김진희, 2015).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세계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들을 시작하였고,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첫 교수·학습 지침서인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Objective(2015)』를 발간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맥락에 맞게 풀어쓰고 설명한 해제본으로써 『2015년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를 출판하였다. 두 책을 통해 우리는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실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을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한다(유네스코, 2015). 이와 관련하여 핵심 개념을 인지, 사회·정서, 행동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 영역에 걸친 학습자 특성의 구현을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은 3개의 하위 학습 주제를 가진다. 여기서 ‘학습자 특성’은

세계시민교육을 실현하여 얻고자 하는 학습자의 자질을 의미하며, ‘학습 주제’는 학습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틀이다(박순용 외, 2015).

먼저 인지적 영역에서 추구하는 학습자 특성은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로 세계 속에 존재하는 나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학습자들은 개인·지역·국가·세계가 다중적으로 연계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과 다양한 현상에 깔려 있는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관계 등을 인식함으로써 비판적 문해 능력을 갖추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추구하는 학습자 특성은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이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을 지향하고,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다양한 공동체의 생활 방식, 다양한 문화 등을 학습하면서 차이에 대한 존중, 평화적으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동적 영역에서 추구하는 학습자 특성은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주체적 실천가로서의 학습자를 강조하며 세계시민으로서 다양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활동 등을 통해 의식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박순용 외, 2015). 이 세 가지 영역 각각이 추구하는 학습자 특성과 학습 주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세계시민교육의 영역과 내용

영역	인지	사회·정서	행동
학습자 특성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학습 주제	-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의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	-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 참여하고 실천하기

출처 : 유네스코(2015, pp.27-29) 재구성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시민교육은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에서 서로 다른 이슈들을 다루고 있으나, 각 학습이 분절적으로 일어나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을 학문적으로 구분한 것일 뿐 이 세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유네스코, 2015). 또한 이를 실제 적용하는 교수자는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주제 외에도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을 교육과정 및 자신의 교과에 재구성하여 수업을 다채롭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카니발 페다고지를 적용한 세계시민교육

카니발 페다고지는 러시아의 문학이론가이자 철학자, 기호학자 등으로 불리는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과 프레이리의 비판적 페다고지를 결합한 교육학적 이론이다. 카니발 페다고지라는 용어는 200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트리니다드 토바고(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의 린더세이(D. Lindersay)에 의해 최초로 거론되었으며 ‘유쾌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실천’으로 정의된다(이동연, 2006).

카니발의 기원이 되는 축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풍요나 다산을 기원하는 이교도적인 제사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축제는 공동체의 화합과 결속을 이끄는 놀이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중세시대에 이르면서 카니발은 중세 민중 문화를 대표하는 축제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바흐친은 카니발에서 나타나는 문화를 중세·르네상스의 귀족 문화(공식문화)와 대척점에 있는 비공식문화로 대표되는 ‘민중문화’로 구분하고, 카니발 기간에 벌어지는 저항적 민중문화의 특징에 착안하여 카니발 이론을 정립시켰다(신혜영, 2010).

민중 문화는 공식문화에 대한 저항이며 기존 체제를 뒤바꾸는 전복(顛覆)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그로테스크 리얼리즘(Grotesque Realism)²⁾이라는 미학적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를 통해 공식문화는 희화화되어 민중의 ‘웃음’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민중의 웃음은 양면적이다. 하나는 현실에 대한 일시적 부정과 일탈로서의 웃음이며 또 하나는 유토피아적 이상을 향한 갈

2) 바흐친의 문학이론에서 나온 용어로 카니발적 현상이 하나의 역동적인 소설기법으로 수용된 문학양식을 일컫는다. 그의 카니발 세계에는 갇은 욕설과 음담패설, 적나라한 신체 표현 등이 묘사되는데 이는 중세의 금욕적이고 내세적인 중세의 이데올로기와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타락성간의 위선적인 괴리를 넘어서고자 하는 의도이다. 고착되고 왜곡된 사물과 사물사이, 혹은 사물과 관념 사이를 살아 있는 역동적인 관계로 활성화함으로써 리얼리즘적인 예술적 성취에 이르는 기법이다(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망을 구체화한 웃음이다. 민중의 웃음은 결코 웃을 수 없는 웃음인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는 카니발이라는 해소의 장(場)을 통해 일시적이지만 탈 위계, 현실 질서의 전복 등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문화 창조를 견인하는 힘을 얻게 된다(신혜영, 2010).

하지만 카니발 이론은 사회문화이론으로서 교육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적용되려면 맥락적으로 상통하는 교육학적 이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가교 역할로서 비판적 페다고지를 대표하는 프레이리의 ‘페다고지’에 주목한다(강인애 외, 2016). 프레이리는 그의 대표적 저서 『억눌린 자를 위한 페다고지』에서 교육이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가능하며 대화의 결과는 ‘새로운 인간됨’의 해방적 경험이다.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끊임없는 성찰 과정을 통해 변혁적 실천(Praxis)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결국 프레이리가 꿈꾸는 교육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세계의 변혁이다(Freire, 2002).

카니발 페다고지는 민중의 의식화를 추구하는 프레이리의 비판적 페다고지의 흐름 안에서 억압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카니발의 장소에서 유쾌하고 즐거운 놀이를 통해 드러낸다. 즐거운 놀이는 전복, 그로테스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 활동의 과정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 그리고 카니발 페다고지가 강조하고 있는 주체성, 비판적 의식, 변혁적 실천 등은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

강인애 외(2016)는 카니발 페다고지를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 경우 ① 고찰 및 비판, ② 풍자와 해학적 접근, ③ 해소, ④ 발전적 모색의 4단계로 진행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예술작품을 삶의 문제와 연결하여 사회의 모순을 발견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1단계, 이전 단계에서 인식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패러디(풍자)와 웃음(해학)을 통해 예술 활동으로 모색하는 2단계, 카니발을 통해 억압받았던 자들을 대변하면서 스스로는 사회의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출하는 3단계, 마지막으로 의식화를 통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문제에 대한 도전의식이 발현되며 사회적 참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4단계가 그것이다(강인애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카니발 페다고지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위해 유네스코에서 구분했던 인지적, 사회·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내용과 카니발 페다고지의 특징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학습단계로 활용하고

자 한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세계시민교육과 카니발 페다고지 영역별 특징 비교 및 학습단계

	세계시민교육	카니발 페다고지
인지적 영역	세계 이슈와 상호연결성에 대해 알고 비판적으로 사고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사회의 비판적 인식
1단계	비판적 인식	
사회·정서적 영역	인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을 존중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웃음을 통한 해방감 경험
2단계	다양성 공감 및 존중	
행동적 영역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지역, 국가, 세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참여	변혁적 실천
3단계	행동적 실천	

카니발 페다고지는 세계시민교육이 다루고 있는 인지적, 사회·정의적, 행동적 측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으로 인지적 영역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사회·정서적 영역의 ‘나와 다른’ 다양한 문화를 공감하고 존중하기, 행동적 영역의 ‘변화된 나’를 행동으로 실천하기로 추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세 가지의 공통적 특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이를 음악교과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3. 음악교과에 적용한 카니발 페다고지 기반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단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총론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홍익인간 정신에 기초하여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p.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이미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과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건은 이러한 교육철학과 비전이 세부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에 진정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현장에 얼마나 의미 있는 학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선택 과목인 ‘음악’ 교과에서는 “음악은 ... (중략)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 육성에 이바지한다.”(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각론, 2015, p.24)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음악과 교육과정 목표 또한 총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은 음악과의 영역이 표현, 감상, 생활화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반해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주요 학습자 특성은 인지적, 사회·정의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음악과의 목표와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주요 학습자 특성의 관련성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한다(아태교육원, 2017). 하지만 음악과 교육과정 각 영역별 목표의 내용은 앞서 제시한 카니발 페다고지를 적용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먼저 감상 영역의 목표로 “음악의 사회적·문화적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을 비평한다.”를 제시한다. 다양한 음악을 이해하고 비평하는 활동은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춘 학습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앞서 1단계로 제시한 ‘비판적 인식’ 단계에서의 학습 내용은 음악 뿐 아니라 미술, 영화, 연극, 뮤지컬, 문학 등의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함으로써 사회의 현상들을 다각도로 인식하고,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지 비판적으로 성찰해보도록 하는 활동 등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표현 영역의 목표로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 활동과 경험을 한다.”를 제시한다. 앞서 2단계로 제시한 ‘다양성 공감 및 존중’은 노래, 연주, 음악 만들기, 신체표현 등의 다양한 음악 활동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이전에 인식된 현실의 모순이나 문제들을 ‘소리’를 통해 드러내고, 예술적이지만 풍자적이고 그로테스크한 표현 등을 통해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 때 즐거움은 단순한 재미뿐만 아니라 진지한 몰입이 동반되어야 한다. 학습활동은 발표, 공연, 음악극, 역할극, 전시, 토론, 비평 등 어떠한 형식을 취해도 무방하다(강인에 외, 2016). 수업의 전 과정 속에서는 교사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 타인과의 상호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 작품들이 직접적으로 공유되고, 공유된 작품은 새로운 관점을 이끌어낸다. 이것은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생활화 영역의 목표로 “음악적 활용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고, 음악 애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를 제시한다. 즐겁고 유쾌한 음악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음악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변화된 인식을 토대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과 관련한 내용은 앞서 3단계에서 제시한 ‘행동적 실천’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여기서 사회적 참여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과 개혁을 외치며 구호가 난무하는 거리로 나서는 참여를 의미하지 않는다(장진혜, 2017). 즉, 이전 단계에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변화를 성찰해보고,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탐색해보는 실천적 모색이 곧 행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지역, 사회, 국가, 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음악의 생활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카니발 페다고지 기반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단계를 음악 교과에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음악 교과에 적용한 카니발 페다고지 기반 세계시민교육의 학습 단계

카니발 페다고지 기반 세계시민교육 학습 단계		2015 음악과 개정 교육과정 영역별 목표		음악 교과에 적용
1	비판적 인식	감상	음악의 사회적·문화적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을 비평한다.	예술작품을 활용한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
2	다양성 공감 및 존중	표현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 활동과 경험을 한다.	종자적·해학적 표현
3	행동적 실천	생활화	음악의 활용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고 음악 애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실천적 모색

Ⅲ. 음악 교수·학습 방안

1. 음악 교수·학습 설계

카니발 페다고지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음악 교수·학습 설계는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먼저 세계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인 “지식정보와 비판적 문해력을 갖추고(인지적),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며(사회·정서적),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행동적)”을 음악과 학습목표로 재구성하

여 영역별로 각각 제시한다.

2단계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학습주제를 선정한다. 앞서 <표 1>에서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주제 중 각 영역별로 하나씩을 선택한다. 이후 3단계에서는 선정된 학습주제를 음악 교과와 내용으로 재구성하여 각 영역별 교수·학습 내용을 선정한다. 이때 무엇보다 교사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음악교사는 질 높은 예술적 경험을 고민하는 동시에 학교, 지역, 국가, 세계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에 관심을 갖고, 이를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당연한 것들을 바꾸어보고, 뒤집어보고, 새롭게 볼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 4단계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음악과 교수·학습 단계별 실천이다. 이때 앞서 제시한 <표 3>의 음악 교과에 적용한 카니발 페다고지 기반 세계시민교육 3단계를 진행한다. 먼저 ‘감상’의 단계이다. 이 때 다양한 소리, 그림, 연극, 신체표현 등 타 예술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표현방식들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음악을 거시적인 측면 즉, 역사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기존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작품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20세기 이후의 현대 예술 작품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사물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한 풍자와 해학적 접근의 ‘표현’ 단계이다. 이전에 비판적 사고의 과정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음악으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주로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며, 교사는 다양한 음악적 표현 방법과 예시들을 안내하여 학생들이 진지하지만 위트(wit)가 있는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때 카니발의 장(場)을 학습의 공간인 교실을 넘어 학교로 확장시킬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학교는 부조리와 모순, 억압과 갈등을 경험하는 곳이며 동시에 소통과 화해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다. 비판적 인식이 담론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확장을 통해 표현됨으로써 학생들은 ‘나’에서 ‘우리’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표현들을 공동체의 구성원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다름에의 존중, 공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험하는 소통의 장을 교실, 학교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로까지 확장시켜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천적 참여를 모색해보는 생활화 단계이다. 음악적 표현 이 후에 이루어지는 이 단계는 자신이 수행했던 모든 과정들과 느낀 점, 이전의 나와 지금의

일어나야만 가능한 것으로 성찰은 행동에 대해 반응하고 수정된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의 마지막 뿐 아니라 전 과정에 걸친 반성적 행위를 통해 긍정적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체자로서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결국 사회적 참여에의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다.

2. 음악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수업과정안은 앞서 <그림 1>에서 제시한 전개 과정에 따라 진행된다. 다음은 고등학생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한 카니발 페다고지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음악과 수업의 예시이다.

<표 4> 카니발 페다고지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음악 수업 예시

프로그램명	세계시민교육		대상	고등학교 1학년
과목	음악		수업모형	카니발 페다고지
학습 목표	1. (인지적) 다양한 예술 작품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전쟁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음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발표할 수 있다. 2. (사회·정서적) 모둠별로 학교, 지역사회, 국가, 세계 차원의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음악과 행위가 있는 시청각적 작품으로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3. (행동적) 변화된 인식을 토대로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발표할 수 있다.			
학습 주제	학습 단계	차시	교수-학습 내용	평가
인지적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 관계	감상 다양한 예술 작품을 활용한 '비판적 인식'	1 ~ 2	도입 - 르네 마그리트 <This is not a pipe> 제목 유추하기 전개 1. 기본탐구 : 주제 토의하기 - 다다이즘과 우연성 음악을 대표하는 작품 감상하기 • 미술 작품 : 마르셀 뒤샹 <샘> • 음악 작품 : 존 케이지 <4분 33초> 모둠별 토의 주제 1. 이 작품은 예술일까? 예술이 아닐까?	

		모둠별 토의 주제 2. 두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은? 2. 심화탐구 : 주제 토의하기 - 다다이즘과 우연성 음악의 특징을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사적 배경을 통해 알아보기 모둠별 토의 주제 3. 국가 간의 권력 관계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3. 사고 확장하기 : 주제 토의하기 - 평화를 노래하는 두 음악 감상하기 · 음악 작품 1 : 존 레논 <Imagine> · 음악 작품 2 : 밥 말리 <No woman, No cry> 모둠별 토의 주제 4. 평화를 노래하는 두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토의해보자. 4. 성찰 일기 작성하기 - 수업을 통해 느낀 점 - 인식의 변화 - 전쟁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 - 음악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 정리 1. 형성평가 : 르네 마그리트 <This is not a pipe> 제목 안내하기 ⇒ 인식의 변화 관찰 2. 수업 정리 및 차시 예고	·관찰 ·상호 평가 ·성찰 일기 (교사, 학생) ·포트 폴리오 (과제 수행 과정을 담은 이미지, 과제 결과물)
사회 · 정서적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	표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한 ‘풍자와 해학적 표현’	도입 - 프로젝트 수업 제시하기 점심시간 ‘Pop-up 콘서트’ 제작하기 전개 1. 프로젝트 수업 실행하기 ① 모둠별로 학교, 지역사회, 국가, 세계 차원의 이슈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기 예) ‘인권 침해’ 관련 기사 탐색 ⇒ ‘호주 마누스 난민수용소’의 사례 선택 ⇒ ‘호주 마누스 난민수용소’의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한 기사 다각도로 탐색 ⇒ 모둠별 대화를 통해 인권 침해에 관한 비판적	3 ~ 6

			고찰 ⇒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성찰 일기에 작성하기 ② 선택한 이슈를 풍자와 해학이 있는 음악과 퍼포먼스 만들기 · 방법 1 : 기존의 곡에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로 개사하여 표현하기 예) 밥 말리 <No woman, No cry>에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풍자와 해학의 방식으로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르고, 이에 어울리는 행위를 만든다. · 방법 2 :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다양한 소리들을 조작(재가공)하여 표현하기 예) ‘인권침해’와 관련한 다양한 뉴스나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소리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음악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하나의 음악 작품으로 만들고 이에 어울리는 행위를 만든다. · 방법 3 : 완전히 창작한 음악 표현하기 예) ‘인권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자작 랩과 그에 어울리는 행위를 만들어 표현한다. 2. 작품 계획서 작성 3. 작품 제작 일지 작성 정리 - ‘Pop-up 콘서트’ 리허설(Rehearsal)하기	
행동적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생활화 ‘실천적 모색’	7 ~ 8	도입 - ‘Pop-up 콘서트’ 녹화 동영상 감상하기 전개 -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 프로젝트 수업을 마치면서 느낀 점 (공연 전, 공연 과정, 공연 중, 공연 후), ·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비교 · 어떠한 세상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어떠한 사고와 실천을 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방안 모색 정리 1. 실천 방안 발표하고 공유하기 2. 프로젝트 최종 정리하기	

카니발 페다고지에 기반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음악수업은 총 8차시로 구성되며 ① 다양한 예술작품을 활용한 비판적 인식, ②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한 풍자적·해학적 표현, ③ 실천적 모색의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비판적 인식’ 단계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인지적 영역의 학습 주제 중 하나인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를 선택하였다(표 1 참조). 여기서 ‘암묵적 가정’(Underlying Assumptions)이란 어떠한 주장에 감추어진 가치를 드러내어서 주장의 순수성을 평가하는 능력이며, ‘권력의 역학관계’(Power Dynamics)란 권력을 가진 지위에 따라 권력의 역학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면서 작동하는 가는 불평등의 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순용 외, 2015).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를 음악교과에서 다룰 때 ‘다다이즘’ 예술운동을 학습소재로 선정할 수 있다. 다다이즘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의 폭력성과 파괴성을 경험한 예술가들이 서구 이성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표하면서 나타났으며, 기존의 가치들을 전복시키는 행위로서 표현하려는 특징이 있다. 미국 뉴욕다다의 대표적인 미술가인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1887-1968)은 <샘>을 통하여 어떤 것도 미술작품이 될 수 있고, 누구라도 미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레디 메이드(ready-made)³⁾’라는 새로운 미적 개념을 창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작곡가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는 <4분 33초>에서 우연성과 개방성, 불확정성의 요소를 음악에 수용하며 ‘음’의 개념을 ‘소리’로 확장시킨 음악가이다.

다다이즘을 대표하는 두 예술가는 과거의 모든 예술 형식과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기존의 예술 작품이 가지고 있었던 암묵적 가정들을 드러냄과 동시에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자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두 작품이 예술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에 따른 이유, 미학적 공통점 등을 생각해보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술에 대한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 암묵적으로 사물에 투영되어 있는 가치들을 새롭게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세계대전 전후의 시대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예술 운동인 다다이즘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이 이후 예술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국가 간의 권력 관계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모듈별 토의를 통해 다양한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실용성을 가진 기성품이라는 최초의 목적을 떠나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인 암시되어있다. 뒤샹은 이것을 ‘예술작품의 비인간화’, ‘물체에 대한 새로운 사고’라고 부른다(미술대사전, 1998).

마지막 ‘사고 확장하기’ 활동에서는 전쟁을 비판하고 평화를 노래한 대표적인 가수 존 레논의 <Imagine>과 밥 말리의 <No woman, No cry>를 감상하고 음악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모듈별로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수업을 통해 느낀 점, 인식의 변화, 전쟁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음악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 등을 포함하는 성찰 일기를 작성함으로써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음악이 가지고 있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형성평가로는 도입에 제시되었던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 1898-1967)의 <This is not a pipe>를 정리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제시하여 이 작품의 제목을 안내함으로써 첫 시간에 받았던 느낌과 제목을 알고 난 후의 느낌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인식의 변화를 스스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정리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안내한다.

2단계‘풍자적·해학적 표현’ 단계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사회·정서적 영역의 학습 주제 중 하나인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을 선택하였다. 여기서 ‘차이’는 서로 다른을 지칭하며, 각기 다른 문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려는 삶의 자세는 세계시민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박순용 외, 2015).

‘차이와 다양성 존중’을 위한 수업으로 ‘Pop-up 콘서트 제작하기’ 프로젝트 수업을 제안한다. Pop-up 콘서트는 학교 점심시간 중 열리는 일시적 콘서트로 4차시에 걸쳐 제작한 작품을 반별로 공연한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학교, 지역사회, 국가, 세계 차원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찾아보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상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본다. 예를 들면 요즘 세계적 이슈인 난민 정책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라는 문제를 선택한다. 이와 관련한 기사들을 조사하여 심각한 난민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호주 마누스 난민수용소’ 사례를 다각도로 탐색한다. 수집한 관련 기사들을 토대로 모듈별로 현상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성찰 일기에 작성한다.

이 후 자신의 모듈이 선택한 이슈와 관련하여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소리들을 재가공하여 하나의 음악 작품으로 만들어낸다. 이 때 교사는 음악 작품을 만드는 방법으로 3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노래에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 차시에 배운 밥 말리의 <No woman, No cry> 노래에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풍자와 해학의 방식으로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르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는 행위를 함께 만들어 표현한다. 두 번

째로, 선택한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소리를 담아 콜라주 기법과 같이 재가공하는 방법이 있다. 모두가 선택한 주제인 ‘인권침해’와 관련한 다양한 뉴스나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소리를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음악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하나의 음악 작품으로 만들고 이에 어울리는 행위를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창작된 소리를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 시간에 성찰일기 작성을 통해 생각해 보았던 의견들을 인권이 왜 존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가사를 만들고 비트를 더해 행위가 있는 자작 랩으로 만들어 표현할 수 있다.

수업 중에는 공연의 최종 리허설까지만 진행되며, 실제 공연은 점심시간 학교의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 각기 다른 모두가 한 반의 전체 레파토리를 이루게 된다. 유쾌하고 즐거운 공연을 통해 학생들은 학교의 구성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게 되고, 감정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운 관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리를 듣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넘어 공동체로서 ‘우리’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서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 ‘실천적 모색’ 단계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행동적 영역의 학습 주제 중 하나인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을 선택한다.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이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어떠한 행동이 필요한지, 개인과 집단이 지역, 국가, 세계 차원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볼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된다(박순용 외, 2015).

‘Pop-up 콘서트’를 마치고 난 후 맞이하는 마지막 음악 수업에서는 모듈별로 세계시민으로서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본다. 결과 보고서의 내용에는 공연 전, 공연 과정, 공연 중, 공연 후에 느낀 점,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 더 나은 세상이란 어떠한 세상인지,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어떠한 사고와 실천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학생과 교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수업이 마무리 된다. 이 단계를 통해 학생들은 사고와 행동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천적 참여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평가는 수업 전반에 걸쳐 학생들과의 대화 및 활동을 기록한 관찰 평가와 상대방의 행동을 유의 깊게 관찰해보는 의미에서의 상호 평가, 수업 전반에 걸친 생각들을 적은 성찰 일기, 그리고 학생들의 공연 결과물, 작품 계획서, 작품 제작 일지 등을 적은 포트폴리오를 종합하여 학생들의 결과 뿐 아니라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생들의 활동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화와 행동, 태도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다각도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때 8차시에 걸친 활동들이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카니발 페다고지를 적용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즐거움, 자발적 동기 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평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하고 교사의 권위적 개입이나 경쟁을 유도하는 활동 등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세계시민교육은 ‘포용’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기주의’와 ‘부정의’ 그리고 ‘갈등’의 현상을 바라봄으로써 세계 속의 나, 나를 통한 세계를 인식한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의 일상에서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나와 관련된 일상이 확장의 ‘세계’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당연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며 타인의 삶에 공감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자세를 기른다는 점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시민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음악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세계시민교육의 방법론으로써 예술교육의 역할을 다루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특징을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중의 비판적 문제인식과 그 해결을 예술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학습이론으로서 카니발 페다고지를 제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음악교육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실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음악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 단계, 교수·학습 설계 절차, 교수·학습 과정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이 연구가 지니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을 중등 음악교육 분야에 처음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세계시민교육이 오랜 기간 동안 언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음악수업에서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음악은 각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다. 학생들은 음악 속에 내재되어 있는 현상들을 통해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음악 고유의 속성인 ‘소

리'(Sound)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사회적 '목소리'(Voice)를 낼 수 있는 실천적 참여자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교과는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중요한 교과로서 위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음악교육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카니발 페다고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카니발 페다고지는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주체성, 비판적 의식, 참여적 실천 등을 유쾌한 예술 활동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음악교육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에 이 연구는 세계시민교육의 내용과 카니발 페다고지의 주된 특징을 비교하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들을 3단계의 학습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 단계는 세계시민교육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적 맥락 속에 있는 분야 즉, 다문화 음악교육, 생태주의 음악교육, 비판적 음악교육 등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카니발 페다고지 기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음악 수업 설계 절차를 안내하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음악 교육적 의미나 방법의 탐색, 현장 적용 프로그램 개발 등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과 더불어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먼저 학교 음악교육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어야 하고, 향후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현장에의 적용, 교육적 효과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에 교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 학생들과 다양한 세상을 이야기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그릴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삶의 주체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일 것이다. 앞으로 이 연구를 시작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지속가능한 음악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며 학교 현장에서 실천·개선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보라 (2016). 세계시민교육 선도 교사들의 현장 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강인애, 이현민, 윤혜진 (2016). 시민문화예술교육 분석틀로서의 카니발 페다고지 탐색. **문화예술교육연구**, 11(3), 1-20.
- 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서울: 저자.
- _____ (2015).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저자.
- _____ (2015).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서울: 저자.
- 권희연 (2016).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문화예술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 김선정, 주기언, 김영환 (2017). ‘학교교육과 관계된 세계시민교육’ 연구경향: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5), 207-228.
- 김종훈, 정경화, 김지은, 김지현 (2014).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김진희 (2015). Post 2015 맥락의 세계시민교육 담론 동향과 쟁점 분석. **시민교육연구**, 47(1), 59-88.
- 노명완·이차숙 (2002). **문식성 연구**. 서울: 박이정.
- 박순용, 이경한, 조대훈, 함영기 (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 학습 길라잡이**.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배재한 (2014). 또 다른 가능성: 사회 정의를 위한 미술교육. **미술과 교육**, 15(1), 75-94.
- 백송이 (2017). 세계시민교육 핵심 개념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신혜영 (2010). 카니발 이론으로 본 한국의 가면극. **민속학연구**, 26(6), 115-140.
- 이동연 (2006). ‘카니발 페다고지’, 국지적으로 실천하는 예술교육-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원정기. 접속일 12.02.2017. <http://www.arte365.kr/?p=3283>
- 이세영 (2016). 예술적 시민성의 음악교육적 함의: 음악과 교육과정의 생활화 영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현민 (2017). 카니발 페다고지 관점에서의 시민문화예술교육 모형 탐색: 개념도 및 프로그램 평가 루브릭 개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장진혜 (2017). 카니발 페다고지 기반 비판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박

- 물관 연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정연희 (2010). 미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실천 역량. **미술교육논총**, 24(1), 1-26.
- _____ (2011). 예술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사고의 확장. **미술과 교육**, 12(1), 51-70.
- 정우탁 (2015). **모두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서울: 살림터.
- 정진원 (2017). 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음악교육의 방향 탐색. **음악교육연구**, 46(4), 153-174.
- 최미영 (2016). 비판적 페다고지를 적용한 음악교수학습. **음악교수법연구**, 17(2), 271-289.
- 한경구, 이승미, 조난심, 박성춘, 신방호, 박병춘, 이경한, 이정우, 구희남, 장의선, 윤신원, 강선주, 황지숙 (2017).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서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황혜진 (2013). 현대패션에 나타난 카니발레스크 이미지와 의미해석: 바흐친의 카니발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Bakhtin, M. (2001).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이덕형, 최건영 역. 서울: 아카넷.
- Freire, P. (2002). **페다고지**. 남경태 역. 서울: 그린비.
- Langer, Susanne K. (1993).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승훈 역. 서울: 고려원.
- Reimer, B. (1989).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UNESCO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Paris: UNESCO.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Music Teaching · Learning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Based on Carnival Pedagogy

Lee, Kyung-min · Son, Min-jung

A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ecomes a new topic in education, art education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method of developing citizenship beyond creative and emotional asp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ethod of music teaching · learning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 this end, I would like to introduce Carnival Pedagogy, a teaching · learning theory. Carnival Pedagogy is similar t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point of dealing with discussions such as oppression, conflict, critical consciousness, resolution, change, and practice centered on culture and art activities. As a research method, the contents of the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re compared with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arnival Pedagogy, and the common points are classified into three stag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pplied to the national music curriculum revised in 2015 to specify the learning stage, teaching · learning design process, and teaching · learning scenario that can be used in actual music class.

Key word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rnival Pedagogy, music education

투고일: 2월 28일, 심사(수정): 4월 7일(4월 11일), 게재 확정일: 4월 27일